

롯데카드·손보 본입찰 임박... 한화·하나·MBK 등 '혈투'

19일 본입찰... 각 5곳씩 후보 선정 롯데카드 1.5조, 손보 5000억 제시 하나금융·한화, 카드 인수전 적극 손보, 재무건전성리스크 변수 우려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남대문 본사. /롯데카드

이번주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새 주인이 정해진다. 가입자 수가 800만 명에 달하는 '알짜배기' 롯데카드 인수전은 하나금융지주와 한화그룹의 양강 구도로 좁혀지는 가운데 롯데손보는 롯데그룹이 시장 평가보다 높은 매각 희망 가격을 제시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의 매각 본입찰이 오는 19일 진행된다.

현재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금산 분리 원칙(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를 보유할 수 없음)에 따라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에 대한 지분 매각 작업을 벌이고 있다. 롯데그룹 금융계열사 중 롯데캐피탈은 롯데그룹이 매각을 추진하다 잠정 보류한 상태다.

롯데그룹 금융계열사 매각 주관사 시티글로벌마켓증권은 1월 예비입찰을 거쳐 지난 2월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의 적

격예비인수자(쇼트리스트)를 선정했다. 롯데카드 쇼트리스트에는 하나금융, 한화그룹,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5곳이 꼽혔다. 롯데손보 쇼트리스트로는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JKL파트너스와 외국계 전략적 투자자(SI), 재무적 투자자(FI) 등 5곳이 선정됐다.

각각 5곳씩 추려진 인수 후보군에서 누가 새 주인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매각

희망 가격으로 1조5000억원, 롯데손보는 5000억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하나금융과 한화그룹 간 경쟁이 예상된다. 이들은 롯데카드 인수에 관심이 높다는 후문이다.

최근 카드사 수수료 개편으로 전체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지만 롯데카드와는 다른 카드사와 달리 롯데백화점 등 롯데 유통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알짜 매물로 꼽힌다.

실적도 나쁘지 않다. 롯데카드의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1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4%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7176억원으로 1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452억원으로 40.7% 증가했다. 가입자 수는 781만명으로 높은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롯데카드 인수를 통해 카드 부문 규모 확대,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2025년까지 비은행 계열사 이익 비중을 그룹 전체 30%까지 늘리겠다"며 올해 경영전략 중점 과제로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만약 자산규모 약 13조원에 달하는

롯데카드가 인수될 경우 약 7조원인 하나카드는 단숨에 업계 3위에 등극하게 된다. 순이익으로는 업계 4위권까지 넘볼 수 있다.

한화그룹도 롯데카드 인수에 적극적이다. 한화그룹은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카드 부문은 없다. 재계 10위권 내에서 금융업을 하는 그룹사 중 한화그룹만 카드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화그룹은 롯데카드의 유통사 인프라에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한화리조트 등 유통산업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카드 입찰에서는 하나금융지주보다는 한화그룹으로의 인수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고용보장 때문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인수·합병에 있어 내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고용 문제"라며 "아무래도 기존 카드사가 있는 기업에 인수되는 것보다는 카드사가 없는 기업으로의 인수가 고용보장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롯데손보의 경우 사모펀드와 외국계 금융사 간의 경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BNK금융지주가 인수

를 포기하면서 흥행 열기가 롯데카드에 비해 덜하다는 점이다.

롯데손보는 규모나 순이익 측면에서 크지는 않지만 퇴직연금 부문이 강점이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1213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913억원으로 22.4% 늘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부문에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롯데손보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점유율 25.5%를 기록하며 삼성화재(점유율 33.5%)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재무건전성과 자본확충 문제, 높은 매각 희망 가격 등이 롯데손보 인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은 지난해 기준 155.4%로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인 150%를 근소하게 상회하고 있다. 롯데그룹이 제시한 매각 희망 가격 5000억원이 다소 높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카드는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되고 있어 단기 인수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롯데손보는 여러 변수가 있어 이번에 인수가 결정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1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 첫번째)이 이노비즈협회 조호래 회장(두번째),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銀, 이노비즈기업 수출활성화 힘 신는다

이노비즈協·무역보험공과 MOU

신한은행은 15일 서울 중구본점에서 이노비즈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이노비즈기업 혁신성장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노비즈기업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인증받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혁신금융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 수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 신규 인증기업 발굴 ▲보증료 지원 및 특화 금융상품을 통한 금융 우대 서비스 제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안전망보험 무료 제공 및 글로벌 진출 서비스 제공 ▲일자리창출 및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인증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보험사 지급여력 하락... 재무건전성은 '양호'

지난해 4분기 RBC비율 261.2% MG손보 104.2%, 권고기준 밑돌아 생보사중에선 DGB생명 가장 낮아

지난해 4분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MG손해보험을 포함해 모든 보험사가 100%를 넘기며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18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4분기 보험사들의 RBC비율은 261.2%로 3분기(261.9%) 대비 0.7% 포인트 하락했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RBC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기

〈보험회사 RBC비율 변동내역〉

단위: 억원, %, %p

구분	'18.9월말(A)			'18.12월말(B)			변동폭(=B-A)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비율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비율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비율
생보사	884,755	325,214	272.1	893,231	329,324	271.2	8,476	4,110	△0.9
손보사	418,575	172,395	242.8	429,657	177,080	242.6	11,082	4,685	△0.2
합계	1,303,330	497,609	261.9	1,322,888	506,404	261.2	19,557	8,794	△0.7

/자료=금융감독원

위해 도입됐다.

생명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71.2%로 전분기 대비 0.9%포인트 떨어졌다. 손해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42.6%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국내 대부분의 보험사는 RBC비율이 100%를 웃돌며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보였다.

회사별로 보면 생보사 중에서는 DG B생명의 RBC비율이 172.8%로 가장 낮았다. 손보사 가운데서는 MG손보가 104.2%로 가까스로 100%를 넘겼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00% 미만인 보험사에는 적

기시정조치로 강력한 경영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MG손보는 지난해 3분기 RBC비율이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보다 크게 밑돌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올해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2400억원 규모의 경영개선 계획안을 조건부 승인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RBC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자본확충, 위기상황분석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KEB하나은행 "휴일 주차장 무료 이용하세요"

KEB하나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본점 및 명동사옥의 주차장을 시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개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휴일 주차장 무료 이용'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중구 다동 및 명동은 대표적인 관광지이지만 주차할 장소가 많지 않아 휴일에도 많은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KEB하나은행은 이번 주차장 무료 이용 서비스로 시민 및 소상공

인의 편의 제고와 명동 및 다동, 무교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휴일 주차장 무료 이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하나금융그룹 활동의 일환이다.

다문화가정·다자녀가정·독립유공자 등을 선정해 휴일 주차장 무료이용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무료이용 문자 메시지를 제시한 손님에게 4시간 주차장 무료이용을 할 수 있게 했다. /홍민영 기자

'도전·희망 상징'... 우리금융, 밝은 청색 여명 '배지'로 변경

우리금융그룹은 지주사 출범 첫 해 전 그룹사 임직원이 그룹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그룹 배지를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디자인해 선보이는 배지는 기존 금색에서 그룹 심볼 컬러인 밝은 청색 그라데이션(색조변화)으로

변경해 CI(Corporate Identity)의 통일성을 강화하면서 '여명'을 상징하는 그룹 심볼 마크의 의미를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그룹의 심볼마크는 도전과 희망을 상징하는 여명을 표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금융의 새 지평을 여는 선도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오른쪽)이 한 직원에게 새롭게 디자인된 그룹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우리금융그룹